

국감 출석 조희대 대법원장, 의원 질문공세에 ‘침묵의 90분’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사위 국감...민주 “대선개입 의혹 국민 앞에 해명해야” 촉구 인사말 제외 질의엔 묵묵부답...국민의힘, 이석 요구하며 항의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 받았다.

민주당은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권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압박했다.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이례적으로 빨랐던 공직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추미에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강력히 반발했다.

이날 질의 시간 동안 추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조 대법원장의 신분을 두고 ‘참고인’이라고 언급했으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 불출석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데다 참고인조차도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제차 이석을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 기일 운영, 판결 선

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관례를 무시하고 예외를 적용해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다”며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여전히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에 대해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물어볼 수 있다”며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국회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 (대법원장)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군택(광산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 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던 중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고 등원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가슴에 검은색 ‘근조’ 리

본을 단 채 대법원 국감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희대 농취’와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증인은 채택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때문”이라며 “추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오늘 법사위를 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위해 재판을 다시 해보자는 것 같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발언을 보니 ‘이재명 재판 변호인’인 줄 알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추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의사 진행을 계속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헌법 등을 거론하면서 “저에 대한 이번 국감의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놓고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법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의 질의에 일침 답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 추모’ 국회에 분향소

국민의힘은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경기 양평군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국회에 설치하고 단제 조문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마친 뒤 국회 내에 설치한 분향소로 함께 이동해 고인의 넋을 기리며 헌화·목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분향소에서 상주 역할을 하며 조문객을 맞기로 했고, 14일까지 이틀간 상임위 별로 조를 짜 분향소를 지키기로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이번 사망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김현직 대통령 실 제1부속실장 국민제보센터’와 ‘특검 갑갑수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광주가 정답”

민주 광주시당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13일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를 공식 천명했다.

‘AI 고속도로’의 핵심 인프라를 광주에 세워 국가 경쟁력과 디지털 주권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AI를 “미래 성장동력을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가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광주는 2018년 전국이 에타면제 사업으로 도로·철도 등 전통 SOC를 고를 때, 유일하게 ‘AI’를 도시의 미래 축으로 선택했고 그 결정을 실제 성과로 증명해 왔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AI기업 320곳과 협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160개 기업이 지역에 동지를 틀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추가로 청년 일자리 640개가 직접 창출되면서 산업 생태계가 가시화됐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향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예산·정책 전 분야에서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당은 마지막으로 “정부·기업·국민이 힘을 모아 국가 AI컴퓨팅센터의 광주 유치를 이뤄내자”고 호소했다.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를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배치하느냐가 향후 10년 한국 산업의 속도와 범위를 좌우하는 만큼, 선제 투자와 집적 효과가 가능한 거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국감 브리핑

민형배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폐관”

지난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을) 국회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 사례는 매년 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648곳(9.7%)이 휴·폐관 상태였으나, 지난해는 전체 6830곳 중 1440곳(21.1%)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5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폐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체 221곳 중 21곳(9.5%)이 문을 닫았다. 이어 세종(6.1%), 광주(5.9%), 경기(5.4%)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반면 이용자 수는 2020년 2198만명, 2021년 2195만명, 2022년 2797만명, 2023년 3027만명,



2024년 3247만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문제는 예산이다. 지난해 공공도서관 지원예산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작은도서관 사업 예산 모두 5년 전보다 줄었다. 특히 문제부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예산 200만 원은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

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독서·서점·도서관·출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작은도서관 휴·폐관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지적·문화적·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서 문제부는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안도걸 “퇴직연금 기금화면 퇴직 소득 2.6배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동남을)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첫날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3년은 국민경제를 얼어붙게 하고 민생을 파탄으로 내몬 실패의 시간이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장막’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바꾸며 대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불과 4개월 만에 모든 경제지표가 반등세로 돌아서며 국가 정책 리더십(국가 CEO)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0.2%의 역성장이던 경제성장률은 2분기 0.7%로 급등했고, 코스피는 사상 최초로 3600선을 돌파했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는 세수기반을



붕괴시키고 낙수효과조차 없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가 CEO형 리더십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제 앞으로의 10년 이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국민연금 수준의 수익률을 확보할 경우, 연간 23조원, 국민 1인당 322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며 가입자 퇴직소득(수익률 6% 수준적용시)이 최대 2.6배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물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